

(비공식 번역본)

제 15 차 한중일 화상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2.12.16)

2022 년 12 월 16 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일본의 보건장관은 제 15 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한중일 3 국의 공동 공중보건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 19 에의 모든 대응 노력을 인지하고, 제 13 차 및 제 14 차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팬데믹 또는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오거나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협력, 보편적 의료보장(UHC), 그리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회의의 의제로 논의하였다.

1.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한중일 3 국의 지리적 접근성과 국경이동 및 운송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에의 강력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중일 3 국은 ‘대유행을 초래하거나 높은 중요성을 지닐 잠재적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 간 공동실천계획’(이하 ‘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하여 각국의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래 팬데믹과 지역 유행 감염병 위협의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합치된 노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보건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への 접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며, 또한 의료 인력 교육과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는 감염병의 글로벌 감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원헬스 접근 방식이 잠재적으로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가 될 수 있는 동물성 병원체와 팬데믹을 예방 및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협력적인 논의와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헬스 접근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항생제 내성(AMR)을 보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일 3국이 원헬스 접근 방식과 통합된 국가 및 지역적 전략을 함께 논의하여 사람, 동물 및 환경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제안한다.

2. 보편적 의료보장(UHC)

UHC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모든 보건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가치로, 이를 통해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모두가 기초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난적 상황에서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우리는 필수적으로 UHC 관련 투자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UHC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중일 3국은 UHC 달성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 관련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디지털 헬스 기술을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수단으로써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우리는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글로벌 UHC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헬스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하며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일 3 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UHC 달성을 위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중일 3 국은 3 국 협력사무소(TCS)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RPO)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인력 연수, 우수사례 및 모델 전수 등을 통해 역내 회복력 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공중 보건위기 상황을 겪으며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아태 국가들의 역내 지속 가능한 UHC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건강한 노후 보장

우리는 한중일 3 국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한 노후 및 활력있는 고령사회 달성과 비감염성질환 관련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WHO 에 의하면, 건강한 노후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강화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차원의 접근과 의료·요양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개인의 의료·돌봄 필요와 선호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는 일차(예방)의료, 전문치료 및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통합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년기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Aging in Place, AIP)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 중 하나이다. 자택을 중심으로 익숙한 근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노인의 독립성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 및 요양 인프라를 강화하고, 노인의 복잡한 의료 및 돌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 대비 암,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전념하는 동안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중일 3 국은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4. 다음 회의

우리는 3 국 보건장관회의가 3 국 협력사무국(TCS)의 협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모든 활동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차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23 년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다.